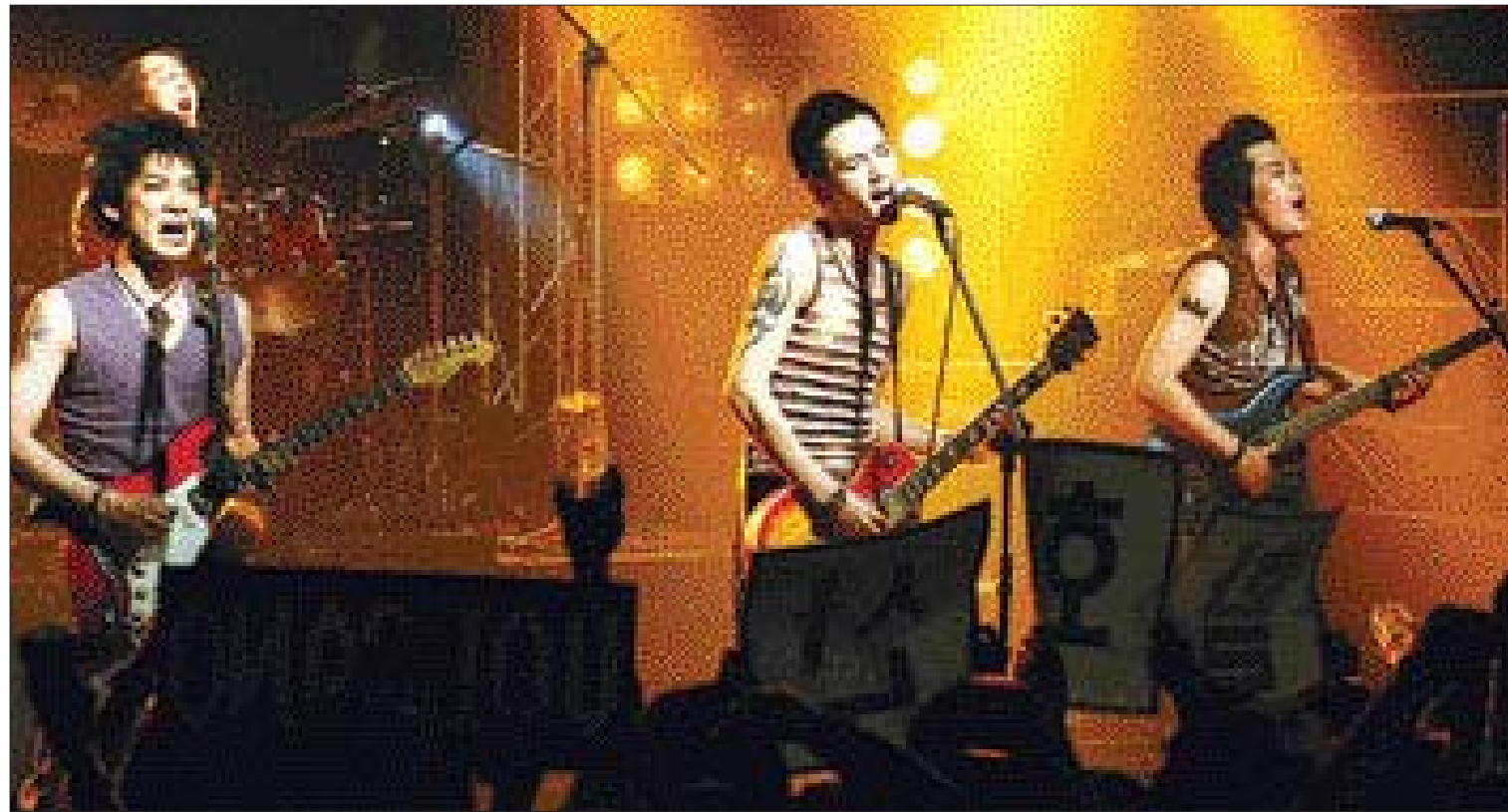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즐거운 인생'

핸드볼 선수, 록커, 요리사...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배우들 고·군·분·투

영화 '반칙왕'과 '역도산'의 주인공이었던 송강호와 설경구는 레슬링을 하는 주인공 캐릭터 탓에 실제 레슬링을 배워야 했다.

핸드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스포츠의 긴장감과 인간 드라마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다.

실제 선수 출신인 7명의 조역들과 문소리 등 배우들은 영화 크랭크인 수개월 전부터 기초 훈련을 비롯, 핸드볼 선수에게 하루 8시간씩 강훈련을 받았다.

좀 더 사실적인 연기를 통해 '진짜' 영화 속 주인공이 되기 위한 배우들의 고군분투가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여자

'즐거운 인생'의 출연 배우들은 드럼, 기타 등 악기를 다루고 직접 노래를 불러야 해서 수개월 동안 악기와 씨름했다.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의 이준익 감독이 내놓은 '즐거운 인생'은 대학시절 함께했던 그룹 사운드 멤버의 죽음으로 재회하게 된 40대 친구들이 죽은 친구의 아들과 함께 밴드를 조직,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는 과정을 그린 연극 드라마이다.

백수 가장 정진영, 낮에는 택배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김윤석, 기러기 아빠 김상호 등 충무로의 연기와 배우들이 죽은 친구의 아들 장근석과 함께 밴드 '활화산'을 조직하는 과정이 주된 줄거리다.

"직접 연주해야 한다"는 감독의 주문으로 배우들은 하루 8시간씩 연습에 임해 영화 속에서 '타질거야' '불놀이야' '즐거운 인생' 등을 직접 연주한다.



'식객'의 김강우.

갑갑한 현실에 찌들었던 대기업 만년부장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직장인 밴드를 결성하는 내용을 줄거리로 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출연진들 역시 악기 연주에 열중했다.

'갑근세밴드'를 조직한 백윤식은 드럼 스틱을, 임하룡과 박준규는 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영화 속 주제가도 직접 부를 예정이다.

만화가 허영만의 동명의 원작을 영화화한 '식객'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식 맛을 자랑하는 운암정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대립하는 두 명의 천재 요리사 성장과 봉주의 이야기다.

주인공의 요리 대결이 '식객'의 기본 줄거리다 보니 주연 배우 김강우와 임원희는 진짜 요리사처럼 보이기 위해 다양한 실습 과정을 거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영화 (Movie) and 상영극장 (Theater). Lists movies like '리턴', '서핑 업', '판타스틱 4 실버서피어의 위험', etc., and their respective theaters.

'포도나무를 베어라'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초청

올 2월 개봉한 민병훈 감독의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 (제작 엔터와이)가 23일 개막하는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영화제의 '포커스 온 월드시네마'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내용을 다룬 영화다. 지난달 체코에서 열렸던 카를로비 바리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된 바 있다. 영화공간 관계자는 "민 감독의 작품이 국제영화제에 잇따라 초청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민 감독의 두번째 영화 '괜찮아, 울지마'의 국내 개봉(30일)을 앞두고 희소식이 날아들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 죄책감을 가진 신학생 수현(서장원)이 수도원 생활을 하던 중 수아와 닮은 헬레나 수현 수녀(이민정)를 만나 사랑을 느끼면서 혼란을 겪는다는

라 초청을 받으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민 감독의 두번째 영화 '괜찮아, 울지마'의 국내 개봉(30일)을 앞두고 희소식이 날아들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희뉴스

주목! 이영화 두 부부의 엇갈린 사랑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두 부부의 엇갈린 만남과 새롭게 시작된 사랑을 그린 다소 과격적인 연애담이다.

연애 기간 4년을 거쳐 결혼한 지 3년째 된 유나와 민재 부부와 집안끼리 맞선으로 만난 결혼 3년차 영준과 소이 부부는 친한 친구이자 산배인 철우의 와인바 오픈 파티에서 처음 만난다. 다정해 보이는 유나 부부와 달리 영준 부부는 왠지 소원해 보인다. 며칠 후 흥풍 출장을 떠난 소이는 유나의 남편 민재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이 돋보이며 이국적인 흥풍거리와 화려한 패션 등 볼거리도 풍부하다. (18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National Support Student Recruitment) and '현대직업전문학교' (Modern Vocational College).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대특강'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Grand Lecture) by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Civil Servant Academy).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th and 9th Grade Civil Servant Success is Led by Hanbit!) by '한빛공무원학원' (Hanbit Civil Servant Academy).

Large advertisement for '공시최고' (Public Exam Highest) featuring a list of exam dates, sub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정수경' (Gwangju District Court Suncheon Branch Judge Jeong So-kyung).